

글로벌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 문명사적 측면을 통해 -

김채수*
chaesu@korea.ac.kr

<目次>

- | | |
|---|-----------------------|
| 1. 서론 | 3.1 글로벌시대의 글로벌화 현상 |
| 2. 글로벌시대(the global) 의 의미 | 3.2 글로벌화의 도래 경위와 전자산업 |
| 2.1 「글로벌시대」(the global ages)에서의 「글로벌」(the global)의 의미 | 3.3 글로벌통신수단과 전자기파 |
| 2.2 「글로벌」의 의미와 우주적 시각 | 4. 광기(光器)시대와 글로벌시대 |
| 2.3 용어「글로벌 시대」(the global age)와 M. 맥루한의 「지구촌」(the global village) | 4.1 「광기(光器)시대」의 의미 |
| 2.4 글로벌시대(the global age)와 우주중심시대 | 4.2 광기시대와 그 도래경위 |
| 3. 여러 글로벌화 양상들과 그 도래경위 | 4.3 전자기의 특성과 글로벌시대 |
| | 4.4 전자기력과 핵력 |
| | 5. 결론 |

主題語: 글로벌시대(the global age), 시대구분(periodization), 석기시대(the stone age), 금속기시대(the metal age), 전자기파(the wave of electromagnetism), 근대성(modernity), 전후 일본(the japan of the after war)

1. 서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글로벌 시대란 문명사적 측면에서 파악해 볼 때 어떤 시대로 규정 될 수 있으며, 또 이 글로벌 시대의 인간이 추구해나가는 보편적 가치란 과연 무엇인가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대다수 국가들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로 통일되어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1년 소련 소멸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각국의 국민들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각 나라가 취해나가는 여러 경제정책들을 비롯한 많은 주요 정책들로부터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의 작간접적인 제약을 받아가야 하는 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틈에 각 나라의 국민 개개인들은 자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가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국민까지도 자신들의 치열한 사회적 경쟁대상자로 인식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불과 20년 사이에 각 국민 개개인들은 어느 틈에 상대방들로부터 어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많은 청년이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좌절한 나머지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자살까지 시도하는 자들이 속출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본주의의 발상지 영국이나, 그것을 이상적으로 실행해가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북유럽, 혹은 현재 자본주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뉴욕 등과 같은 지역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집단적 행위를 일으키고 있고, 또 그들의 그러한 불법적 행위들은 날로 더 격화되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글로벌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를 그 본질적 차원에서 고찰해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대의 특성에 대한 고찰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과 같은 주로 사회과학적 학문영역에서 행해져 나왔다. 예컨대, 전 지구적 차원의 정부형태(the global governance), 지역문화라든가 개별국의 상품 내지는 기업 등의 글로벌화 현상, 전 지구적 차원의 국제적 정치경제체제 등에 대한 고찰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역사학, 문화연구 등과 같은 인문과학적 시각에서 그러한 것들을 고찰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본 연구는 문명사적 측면에서 글로벌시대의 이념적 본질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글로벌 시대에 대한 어떠한 연구들과도 구별될 수 있을 것이라 고찰된다.

본 연구에서의 글로벌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찰과 수순을 통해서 행해진다. 우선 첫 번째로 어원론적 측면에서의 ‘글로벌’(the global)이란 용어를 고찰한다. 두 번째로 글로벌 시대의 시발점으로 이야기되는 1990년대 이후 각국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시대적 특성과 그러한 글로벌 시대의 도래 경위를 파악한다. 세 번째로 그러한 글로벌시대의 도래를 가능케 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닌 것들인지를 규명해 내서 그것들에 대한 특성규명을 통해 글로벌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파악해낸다고 하는 것이다.

2. 글로벌시대(the global)의 의미

2.1 「글로벌시대」(the global ages)에서의 「글로벌」(the global)의 의미

「글로벌」(the global)의 의미는 「세계」(the world), 「지구」(the earth) 등의 의미들과 비교해 고찰될 수 있다. 「글로브」(the globe)·「세계」(the world)·「지구」(the earth), 바로 이들 세 용어들은 우리 인간이 존재해 있는 천체(the planet)를 가리키는 말들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the world'는 「세계」로 'the earth'는 「지구」로 각각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영어 'the world'의 원래 의미는 신(God)에 대한 「인간 존재」(human existence) 혹은 전생(前生)이나 내세(來世)에 대한 「현생」(this present life)을 의미하는 말이었다.¹⁾ 또 영어 'the earth'는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나온 말인데 그것이 취했던 원래의 의미는 한국어로 「지면」(地面), 「근거」(根據) 등의 의미를 지닌 'the ground'를 의미했었다.²⁾ 이에 대해 'the globe'는 「구체」(a round body)를 의미하는 불어 'globe'와 라틴어 'globus'로부터 나온 말로서³⁾, 현재 한국어로 「구체」(球體), 「지구」등으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세계」(the world)란 신(God)의 피조물인 인간(humans)이 존재해 있는 세계를 가리킨다. 즉 그것은 신(God)이 존재하는 천국(Heaven)에 대립되는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신(God)과 인간을 대립시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존재공간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인간에게서의 신과 인간과의 이러한 대립적 인식은 고대와 중세 시대에 서구인들에게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근세로 들어와 신(God)의 존재 그 자체가 부정되어 나옴에 따라 신과 인간과의 대립적 인식은 더 이상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대신 인간에게서의 정신과 육체와의 대립이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경우 인간에게서의 정신은 하늘(Heaven)을 근거하고 그에게서의 육체는 땅(the earth)을 근거로 해서 성립되어 나왔다는 대립적 인식이 형성되어 나왔다.

한편 근세 이후 서구에서 갈릴레이·코페르니쿠스·뉴턴 등에 의해 태양계 내의 천체 물리학이 정착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인간에게서의 육체적 존재의 근거로 인식되었던 땅(the earth)이 태양계 내의 천체들 중의 하나인 지구(the earth)로 인식되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태양계 이외의 수많은 항성계, 은하계, 성운단 등이 발견되어 나옴에 따라 결국 우리가 처해

1) "world" I.-1.-a., O.E.D. (1989)

2) "earth" I.-1., O.E.D. (1989)

3) "globe", O.E.D. (1989)

있는 지구도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천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지구가 우주 속에 존재하는 둥근 천체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현대로 들어와 인간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나오면서 지구(the earth)가 우주 속의 한 둥근 천체(the globe)로 인식되어 결국 글로브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2.2 「글로벌」의 의미와 우주적 시각

그렇다면 우리가 1990년대 이후의 시기를 신(God)이 있는 하늘(Heaven)과 대립되는 「인간 세계의 시대」(the world age)나, 혹은 신이나 그가 있는 천상세계(Heaven)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구 시대」(the earth age)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글로벌 시대」(the global age)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인류는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제1호의 발사성공을 계기로 대기권 밖의 우주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 인류는 그 일을 계기로 우주의 한 지점으로부터 인간이 생존해온 지구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발을 붙이고 있던 지구로부터 나가서 우주의 한 지점에서 잡아낸 지구의 모습이란 우주에 덩그러니 홀로 떠 있는 하나의 공과도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 우주적 시각으로부터 잡아낸 지구의 표면은 그야말로 둥근(round) 공의 표면처럼 완전히 통일된 공간 그 자체였다.

그런데 지구상의 인간들은 사실 그러한 통일된 하나의 공간에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처해 있는 한정된 지역이나 국가 간 혹은 동일한 이념을 가진 진영 간의 대립을 통해 생존해 왔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구상의 인간들은 핵전쟁 등을 통한 인류 전멸의 위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구상의 인간들은 그러한 위기 탈출의 한 방안으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지구의 표면이 둥근 공처럼 하나의 통일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에게 각인시켜 나감으로써 서로간의 대립을 해소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지구상의 인간들은 우주세계로의 진출을 계기로 그러한 평화공존의식을 고양시켜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글로벌」이란 용어가 부상되어 나와 「글로벌 시대」(the global age)라는 말이 형성되어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글로벌」(the global)이란 말속에는 ‘우주적 시각으로부터 파악한 지구’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3 용어 「글로벌 시대」(the global age)와 M. 맥루한의 「지구촌」(the global village)

「글로벌」(the global)이란 용어가 학술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된 것은 인간의 우주진출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출판되어 나온 캐나다인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1911~1980)의 저서, 『구텐베르그 대집단: 인쇄물인간 만들기』(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1962),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 1964) 등에서의 「지구촌」(the global village)란 용어를 통해서였다는 입장들이 있다.

M. 맥루한은 『구텐베르그 대집단: 인쇄물인간 만들기』를 출판해내기 2년 전인 1960년에 E. 카펜터와 공저한 『의사소통 탐구』(*Explorations in Communication*)에서 「지구촌」(the global village)란 용어를 파악해 내는데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는 “the global coverage”(전 지구적 규모의 청취범위)란 말을 쓰고 있다.⁴⁾ 또 그 이듬해에는 『웹스터 사전』(*Webster Dictionary*)에서 ‘globalism’(지구주의)과 ‘globalization’(지구화)라고 하는 단어들이 실리게 되었다.

M. 맥루한은 이 저서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전기(電氣)응용과학이 어떻게 전 지구를 하나의 마을형태로 축소시켜나가고 있는지를 논해가는 과정에서 「지구촌」(the global village)이란 용어를 쓰게 되었다.⁵⁾ 여기서의 전기응용과학이란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나 정보교환 시스템 상에서의 전기응용과학(electric technology)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분야에서의 전기응용과학이란 유선전화 등과 같은 유선통신, 라디오·TV 등과 같은 빛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통신 등에 대한 기술이었다. 맥루한이 저서를 통해 “global”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앞에서 지적한 “the global coverage”라고 하는 표현에서부터였다. 당시 그가 어떤 맥락 속에서 “global”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해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화되어 나가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무선통신의 위력이 지적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그 시대에는 컴퓨터와 전화선이 연결된 인터넷(the internet)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광역통신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공저서 『의사소통 탐구』(*Explorations in Communication*, 1960)가 출판 된지 10년만인 1969년에 미 국방성 고등연구계획

4) *Explorations in Communication*, ed. Edmund Carpenter and Marshall McLuhan, (USA: the Beacon Press, 1960) p.207

5) Ex. "The new electronic interdependence recreates the world in the image of a global village", p.31,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2)

6) “The INSTANTANEOUS global coverage of radiotv makes the city form meaningless, functionless”(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동시적인 전 지구적 시청 범위가 도시적 형태를 무의미하고 무실용화시켰다), p.207, *Explorations in Communication*

국 (ARPA)이 특정 지역들에 설치한 네 개의 컴퓨터를 접속시켜 패킷(packet)교환망이라는 형식을 취해 알파넷(ARPANet)이란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 인터넷 통신망의 구축을 계기로 「글로벌」이란 용어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 일반화되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또 알파넷이 설치되고 20년이 지난 1989년에 외는 1985년 설립된 NSFNET(미국립과학재단 네트워크)에 알파넷이 흡수됨으로써 인터넷(Internet)란 용어가 사실 상 정식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해 1990년에 가서는 인터넷의 상업 이용이 해금됨에 따라 그 다음해에 가서 상업인터넷협회가 설립되어 드디어 인터넷 시대의 도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그것을 타고 1990년 이후 명실상부한 글로벌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2.4 글로벌시대(the global age)와 우주중심시대

이렇게 볼 때 글로벌시대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 규모의 광역통신망이 구축됨으로써 도래된 시대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구적 규모의 광역통신망의 구축을 가능케 했던 당시 인간들의 지적 풍토는 무엇이었는가? 인터넷의 기초가 구축된 1960년대의 인류의 지적 관심은 미소의 경쟁적 인공위성 발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전 지구적 규모의 광역통신망의 구축을 가능케 했던 당시 인간들의 전 지구적 시각이란 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한 인간의 우주로의 진출에 대한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형성되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시대가 인간이 지구로부터 우주로 나가 우주적 시각에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파악해 가게 된 시점에서 시작된 시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우주로 나가기 이전의 시대란 어떤 시대로 이름 붙여 질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우주로 나가기 이전의 경우에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지구상의 어느 한정된 지점에서 여러 현상들을 파악해 왔다. 이 경우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파악해 가던 지점이란 그들 자신들의 현실적 삶이 실현되는 공간인 지구(the earth) 상의 어떤 한 구체적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 자신들 각자가 처해 있는 지구상의 각 지점에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파악해갔던 시대를 「지구 시대」(the earth age)라 이름 붙여 볼 수 있는 것이다.⁷⁾ 인류 역사의 전개과정에서의 「지구 시대」는 일찍이 르네상스운동기(14~16세

7) 「지구시대」(l'ère planétaire)란 에드가 모랭이 그 저서 『지구는 우리의 조국』(이재형 옮김, 문예출판사, 1993)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그 저서(pp.20-21)에서 지구시대의 서막을 마젤란에 의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16세기의 전반기로 파악했다. 그는 그

기)에 의해 그 발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 때부터 인간들은 신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시각에서, 또 교황이 살고 있는 로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처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신(God)중심적 시각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Human)중심적 시각은 F. 마젤란(1480~1521)과 같은 사람으로 하여 하여금 세계 일주를 감행케 해서 그가 사망한 그 다음해인 1522년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비로소 입증되었고, 또 코페르니쿠스(1473~1543)로 하여금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1543)의 집필을 통해 지동설을 주장케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구 시대」(the earth age) 이전, 즉 르네상스 운동기 이전을 「월드 시대」(the world age)로 불러볼 수 있다는 입장도 취해진다. 「월드」(the world)의 어원이 「영생하는 신(God)에 대해 죽어야 할 인간의 삶이 행해지는 기간 내지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월드 시대」(the world age)란 인간들이 신의 하수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존재해 가던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지구 시대」(the earth age)가 인류가 지구의 실재적 주인으로 인식되어 나오게 된 시대였다고 한다면 「월드 시대」(the world age)는 신(God)이 지구의 주인으로 인식되었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월드」(the world)를 「기독교도들의 세계」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구 시대」가 인간 중심시대이고 「월드 시대」가 신 중심시대라고 한다면, 글로벌시대는 우주중심시대, 다시 말해 우주가 지구의 중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3. 여러 글로벌화 양상들과 그 도래경위

3.1 글로벌시대의 글로벌화 현상

1) 정치적 글로벌화

(1) 미국중심의 정치적 글로벌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글로벌시대의 기점을 1990년대 초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89년 지중해 몰타에서의 미소정상회담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 선언과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 1990~1991년 미국을 수장으로 한 다국적군과 이라크가 맞붙은 걸프전,

시점을 계기로 그동안 우주의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지구가 태양계의 한 위성으로 전락해 버렸다고도 말하고 있다.

1991년 소련 소멸과 독립국가 연합 창설, 1992년 유럽연합(EU)조약의 조인, 동년 중국-한국 국교수립 등과 같은 정치적 글로벌화의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선 그 동안 세계를 양분해 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장벽이 붕괴되어 세계가 자본주의 진영으로 통일되어 나온 현상으로 특징 지워진다. 즉 정치적 측면에서 양분되었던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나오게 된 시점이 글로벌시대의 기점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그러한 글로벌화 현상들은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표면화되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17년 러시아혁명 성공 이후 미국 중심의 자본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으로 양분되었던 세계가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승리와 소련의 소멸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의 정치체제가 미국 중심의 자본진영으로 통일되어 나오게 되었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당시의 글로벌화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통한 미국 중심의 「신세계 질서」의 구축으로 구체화되어 나왔던 것이다. 냉전체제 시기에 미국이 구소련의 미국에 대한 글로벌적 대처에 대응해 오던 전략을 1990년대로 들어와 「지역방위전략」(the regional defense strategy)으로 전환시켰는데, 미국 중심의 「신세계 질서」란 바로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1990년대로 들어와 미국은 태평양지역과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 및 한국 등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 하에서 그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유럽지역에서는 나토(NATO)와의 협력 하에서 그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시켜나간다고 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전략은 바로 이러한 방위전략정책을 구축해 세계를 자기들 중심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었다.

(2) 독일의 글로벌 거버넌스(the global governance)와 일본의 유엔 중심의 세계정책

이렇게 자본주의 진영의 주축이었던 미국의 주도로 1990년대로 들어와 세계의 정치경제체가 통일되어 나오자, 우선 일차적으로 일국(一國=미국) 중심의 정치적 글로벌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독일을 비롯한 각국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자 미국 중심의 글로벌화에 대한 타결책의 하나로 전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13~1992)에 의해 독일에서 1992년에 설정된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가 발안(發案)되어 그 준비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지구적 규모의 통치」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란 용어가 최초로 출현하게 되었다.⁸⁾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미국 중심의 정치적 글로벌화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최강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신들 중심의 세계질서를 확립시켜

8) 自由國民社 編(2001) 『現代用語の基礎知識』東京:自由國民社, p.523

나가기위해 내세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글로벌화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질서 확립의 주체는 미국정부 등과 같은 국가단체가 아니라 NGO와 같은 시민단체나 혹은 UN 등과 같은 비정부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빌리 브란트가 발안했던 당시의 「거버넌스」는 「거버먼트」(government)에 내포된 ‘규제성’에 대립되는 ‘자치성’의 의미가 강조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일본은 미국의 그러한 새로운 세계 전략 정책과 연동하여 3년 3개월간에 걸쳐 정계 개편을 단행한다. 그 결과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확립되었던 「55년 체제」가 호소카와(細川) 연립내각의 발족(1993. 8)을 기점으로 38년 동안 집권해 온 자민당이 야당으로 바뀐다. 그 자민당은 연정으로 출발한 하시모토(橋本) 내각의 발족(1996. 11) 이후 10 개월만인 1996년 11월에 단독 내각 구성에 성공해 결국 3년 3개월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정계개편을 주도해갔던 인물은 1993년 6월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민당을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1942~)였다. 그는 자민당 탈당 직후 신당을 창당했고, 그 후 여러 신당들의 당수를 거쳐, 2004년 5월에는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 당수에 올랐다. 그의 정계개편의 목적은 일본이 UN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 미국의 손아귀로부터 빠져나온다. 그 후에 헌법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군대를 보유해 간다고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대외정책은 한마디로 UN 중심주의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집권 여당의 대외정책은 미국 중심의 세계 전략 정책에 착실히 동조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오자와가 UN 중심의 세계정책을 추진해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정부단체인 UN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국가들의 군사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UN 기관 또한 글로벌 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로 들어서자마자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로 표면화된 정치적 글로벌화 현상은 세계경제 제1, 2위를 차지해 갔던 미국과 일본이 1980년대로 들어와 신보수주의 정책을 취해가게 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이슈화되기 시작되었다. 국제정치를 연구해가는 학자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적 시각에서 당시 자국 차원에 입각해 취해진 신보수주의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국제정치학 분야, 글로벌정치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내온 찰스 케글리 2세(Charles W. Keglegy Jr.)와 그의 동료 유진 R. 위트코프(Eugene R. Wittkorf)가 1984년에 출판한 그들의 저서 머리말에서 “글로벌적 변형과 예기치 못한 경향들이 국제정치학에서 새로운 이슈와 의견의 불일치를 출현시켜왔다”⁹⁾고 지적한 바 있다.

9) "Global transformations and emergent trends have produced new issue and cleava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 The Global Agenda: Issues and Perspectives, U. S. A.:Random House, 1984, p.v

2) 경제적 글로벌 현상

현재 진행되는 경제적 글로벌 현상들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하버드 경영대학 출신의 M. E. 포터(M. E. Porter, 1947~) 등에 의해 작성된 「미국의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보고서」(1986)¹⁰⁾, 1989년 국제회의를 통해 가 제시한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의 「워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M. E. 포터는 당시 영국의 대처 수상(재임, 1979~1990), 일본의 나카소네(中曾根) 전 수상(1982~1987) 등과 함께 당시 강경한 보수주의 정책, 즉 신보수주의 정책을 취해갔었던 레이건 정권(1981~89)에 대해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국제적 전략을 재정식화·재조직화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¹¹⁾ 또 「워싱턴 콘센서스」는 그 동안의 미 정부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대해 세계개혁, 무역의 자유화, 민영화, 규제철폐, 직접투자 등과 같은 정책들을 권고했다. 경제적 글로벌화는 이상과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정책이 신 보수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해 나오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나온 것이다. 경제적 글로벌 현상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어 나왔다.

우선 첫째로 각 기업들의 제품생산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졌다. 경제적 글로벌화의 제1차적 단계는 각 국민국가들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전 세계로 판매되어 나가는 현상이다. 예컨대 1970년대 이전에 미국산 코카콜라가 전 세계로 판매되어 나갔고, 1970년대~80년대로 들어와 일본 소니의 가전제품들이나 도요타의 자동차 등이 전 세계로 판매되어 나갔다. 또 2010년대로 들어와 한국 삼성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통신제품들도 현재 전 세계로 전파되어 나가고 있다. 경제적 글로벌화의 제1차적 단계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국가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그것이다. 그것의 제2차적 단계는 1970년대로 들어와 국제금융시장이 형성되고, 또 외국환이 변동시가제(變動市價制)로 전환해 나옴에 따라, 예컨대 일본의 경우처럼 엔고(圓高)의 결점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일본의 기업들이 해외에 지부를 설립해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제품들을 판매해 가게 되었다던가¹²⁾, 혹은 일본 내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노동임금이 싼 해외로 나가 그곳에서 공장을 지어 제품들을 생산해 내서 그것들을 현지나 혹은 제3국으로 수출해 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일본기업이 일찍이 1970대중반부터 한국의 남해지역 일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로 들어와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의 산둥지역 등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들이 그 구체적인

10) M. E. Porter(ed.)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 A Conceptual Framework",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에 수록되어 있음.

11) 전창환(1996)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자유주의」, 김균 외『자유주의 비판』폴빛, p.323

12) 藪野祐三(1999) 『先進社会の国際環境』京都：法律文化社, p.174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다국적기업들의 등장이다. 1989년 말 조지 H. W. 부시 정권(1989~1993)이 들어서자, 새로운 국제적 정세의 변화로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정책이 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취해짐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가능해지자, 국내기업들은 해외 각지에서 해외기업들과 합작해 다국적기업들을 설립해갔다. 넷째 단계에서는 시장통합이 추진되었다. 국가 간, 지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시장통합이 이루어져 세계단일시장이 추진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2 체결), 유럽연합(EU, 1993체결), 아시안(ASEAN)+3(한중일)(1997년 결성), 아프리카연합(2002년 결성) 등 지역 공동체 내지 지역연합 결성을 그 1단계로 해서 그것을 자유무역시대로 전환시키거나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형성이다. 지역 간, 국가 간의 국제금융기관이 형성되고, 또 유로 등과 같은 공동화폐가 제작 되어 끊임없는 환율변동과 자본이동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나왔던 것이다.

3) 사회적 글로벌 현상

(1) 사회적 글로벌 현상표출의 기본적 방향

사회적 글로벌 현상은 한국사회 미국사회 등과 같은 일국사회체제가 지구촌사회 체제로 전환해 나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일본이나 미국에 가려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우선 한국과 미국정부로부터 반드시 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와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이 입증만 되면 어떤 일정기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바로 국가 간의 장벽들이 하나하나 없어져가고 있다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임과 동시에 일국 중심의 사회체제가 전지구촌(the global village) 중심의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국사회체제란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사회체제인데 반해, 글로벌사회는 글로벌리즘에 기초한 사회체제이다. 내셔널리즘이란 같은 민족 혹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거주해 가는 인간집단이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 대변이라는 차원에서 창출해낸 사상이다. 이에 대해 글로벌리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 혹은 모든 인간집단이 이 지구상에서의 평화공존을 위해 창출해낸 사상이다. 내셔널리즘이 어떤 일정 지역의 인간들의 혈연이나 지연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사상이라면, 글로벌리즘의 경우는 전 지구의 각 지역들이 지닌 그러한 특수성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보편성에 기초해 형성된 사상이다. 따라서 글로벌리즘은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종족이나 인종보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라는 개념을 우선으로 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글로벌리즘은 이 지구상에서의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기초로 해서 성립된 사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사회는 어떤 한 국민이나 혹은 몇몇 국민들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이 지구촌 사회에서의 모든 인종들, 모든 종족들, 모든 민족들, 모든 인간집단들이 평화적으로 평등하게 공존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형성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다.

전후 세계는 1950년대까지 경제부흥과 경제자립을 목표로 돌진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와서는 고도성장을 이루어냈다. 그 과정에서 국가 간의 관세인하, 수입제한철폐 등이 행해져 거대기업의 다국적화가 시작되었다. 또 각국 기업들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그것들의 급성장이 이루어졌고, 국제간의 노동이동이 활성화되어 노동시장의 국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로 들어와 산유국들의 석유가격 인상 단행으로 인해 자원주권을 주창하는 신 국제 경제 질서의 선언이 행해져, 선진국간의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무역의 보호주의와 관리화가 강화되어, 결국 보호주의적 경제내셔널리즘이 대두되었다.¹³⁾

80년대로 들어와서는 영국의 대처수상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해 갔지만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을 취해 신보수주의 정책 취해갔다. 그러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 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신보수주의 정책을 취해갔다. 1980년대 선진국들의 그러한 신보수주의 정책은 1960년대에 이루어낸 그들의 경제적 고도성장과 경제적 풍요를 자국적 차원에서 유지 전개시켜 나가 했던 조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각국 차원에서의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결과들이 몰고 온 악영향은 1970년대까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로 축적되어 나왔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와 우선 고도성장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식량부족 현상이 야기되어 나왔다. 그것에 이어 삼림남벌, 대기오염, 지구환경의 오염과 파괴, 에너지고갈,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강우량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가뭄, 사막화, 해양과 육상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현상들이 표면화되어 나왔던 것이다.

『글로벌시대』의 저자 마틴 엘브로(Martin Albrow)는 상기의 제 현상들을 산업혁명을 일으킨 유럽 국가들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나온 근대화(Modernization)가 몰고 온 결과로 파악하고 있고¹⁴⁾, 또 그는 “산업화, 민주화, 관료화, 도시화, 합리화” 등이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⁵⁾ 또 그는 시간성에 기초한 근대화의 본성인 근대성(the modernity)의 초국형태가 바로 공간성에 의거한 글로벌화의 본성인 지구성(the globality)라는 입장을 취해, “지구성”의 본질을 “근대성”과 대응시켜 파악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⁶⁾ 그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글로벌 세계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비전을 “세계정

13) 石原孝一・松本博一 編者(1990) 『グローバリズムの國際政治經濟學』文眞堂, p.3

14) Martin Albrow(1997) 『The Global Age』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p.26

15) 상동서, p.4

16) 상동서, 상동면

부의 실현, 단일 세계시장, 새로운 세계 질서, 글로벌 문화, 최첨단화된 현대화”로 파악하고 있다.¹⁷⁾

그런데 문제는 근대화(Modernization)의 결과로서 출현한 이상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들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국 국민들의 자국 중심주의적 사고들로 인해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해결을 주도해나갈 정치적 대표들은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혈연, 자기 지역 등의 이익들로 묶인 국민들의 대다수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들로 선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들로 뽑힌 일대다수정치지도자는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를 대표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인들 차원에서는 인류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아니라 민간인들이 일으켜간 사회적 운동이 다름 아니 바로 NGO운동이다. NGO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비정부기구)의 약어로서 그 의미는 「비당파적(non-partisan), 비종교적(non-religious), 공익적(for public good) 성격과 자발적(voluntary), 자율적(self-governing) 성격을 기구」로 정의해볼을 수밖에 ¹⁸⁾ 그러면 NGO운동의 기본정신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시민운동정신과 어떻게 다른가?

(2) 글로벌리즘과 NGO운동의 기본정신

근대 시민운동은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에 대항해 일어난 국민저항운동 정신에 기초해있었다. 즉 그것은 마틴 엘브로가 지적한 “근대성”의 실현에 그 목표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시민운동은 공간성에 기초한 “지구성”의 실현에 그 목표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의 주거환경 정책에 반대해 일으키는 일종의 주민운동 등과 같은 성격을 띠는 운동으로 성격 지워 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해볼 경우 「시민운동」에서의 「시민」이란 어떤 한 정부차원의 정치가 행해지는 국가 내의 한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인간을 말한다. 「시민」이란 말에서의 「시」(市)란 특정지역의 공간(空間)적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경우 우리는 「시민」을 그 특정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지역민」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예컨대 그 지역에 사는 한 인간이 그 지역의 정치적 대표자나 혹은 행정책임자와 어떤 정치적 사안을 놓고 입장이 같을 경우 그 지역민은 그 지역의 정치적 대표자나 혹은 행정가의 편에서서 그의 주장에 동조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그의 반대편 입장에 서서 그와

17) 상동서, p.2

18) 김동춘 외 편저(2000) 『NGO란 무엇인가』아르케, p.9

대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정치적 사인이 확대되면 그것이 주민운동이나 혹은 시민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주민운동의 경우 그 상대는 그 지역의 인접지역의 주민들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운동의 경우는 그 상대가 정부나 정부의 정치적 권력이다. 어떤 구체적 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이 반드시 그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경우에 따라 그 시민운동을 저지시켜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대부분의 주민운동이나 시민운동이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 지역의 시민들의 주거환경 내지 생활환경 등과 관련되어 야기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역민에게서의 주거나 생활환경의 문제란 어떤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혹은 문화적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로서 지역민들의 생명활동과 직결된 문제임에 틀림없다. 주민운동이란 바로 이러한 주민운동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구적 환경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건전한 생명활동을 주관해가는 기관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상 글로벌 시대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바로 이 NGO 운동 정신에 기초해 행해져야한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앞으로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사회적 활동은 국가권력을 대변하는 각국 정부들의 정치적 활동과 각국들의 국가 권력에 대립하는 ‘지구시민’들의 NGO 활동으로 양분될 수 있다. 원래 NGO운동은 지구환경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운동의 첫 발단은 1945년 UN의 한 산하기구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운동”으로 출발되었다. 그 후 그 운동은 1946년 UN의 산하기구인 UNESCO 활동이 개시됨에 따라 그 기구의 환경NGO운동으로 전환해 나왔고, 1969년에 와서는 UN에 SCOPE(환경문제 과학위원회)가 설립되어 그것이 1972년에 가서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의 개최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시켜나갔다. 이와 같이 NGO(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가 국가들의 연합기구인 UN로부터 출현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서였다 할 수 있다.

당시의 UN의 설립 취지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강대국들의 내셔널리즘의 횡포를 견제해가자는 것이었고, 또 강대국들의 지나친 국가주의적 이기심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또 다시 불행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의 차원에서도 그런 일을 막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지적 인도주의적 분위기하에서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NGO는 문자 그대로 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세계 각국에서의 시민단체들을 표방하는 대명사로 전환해 나왔다. 한국의 경우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나오면서 정부 권력에 대항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형성되어 나오게 됨에 따라 그들에 의해 NGO운동이 전개되어 나갔다.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는 1990년대의 글로벌시대로 들어와 NGO 운동의 주류는 각국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일으켜 가는 미국 중심이나 혹은 G8 등과 같은 경제대국들 중심의 자본주의정책에 대항해가는 방향 쪽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UN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라고 하는 5개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중심의 국제기구이다. UN을 비롯한 세계은행(WB),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WTO(세계무역기구) 등과 같은 정부 간 기구(IGO)들이 경제 강대국 중심의 세계를 유지시켜나가고 있다. 이들이 바로 현재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통합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각 정부들이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입장을 결코 취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실질적 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결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강대국들이 시행하는 약소국들을 위한 경제정책은 약소국들의 국민들과 차별되는 현재 자신들의 경제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간다는 전제하에서 취해지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현재의 글로벌 NGO운동은 같은 지구상에 존재해 있는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생물학적 조건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글로벌적 들의 경입각해 그러한 국가적 이기심들에 대항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퇴치해간다는 차원에서혜택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장 전형적인 글로벌 NGO운동단체들 중의 하나는 강력한 반핵운동단체로 알려진 「그린피스」(Greenpeace: 창설 1970년 본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회원국 40개국들이상)의 활동이다. 「그린피스」는 그 활동목표가 “모든 다양한 양태로 자연이 지닌 생명력에 작용해가는 지구의 능력을 확보해 가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고, 또 그것은 그의 캠페인을 글로벌 온난화 현상, 벌목, 과도한 고기잡이, 상업상의 고래잡이, 반핵 등과 같은 전 지구적 규모의 문제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⁹⁾

(3) 자본주의정신과 글로벌정신

현재 전 지구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원래 자본주의 경제체제란 국가를 최대의 활동 단위로 해서 출발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립되어 나올 당시 어떤 한 자본가가 어떤 투자를 위해 만들어 볼 수 있는 최대의 자본이란 자국이 보유한 전 자산이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무역이 성행해지고 국가 간의 투자가 활성화 되자 어떤

19) Greenpeace states its goal is to "ensure the ability of the Earth to nurture life in all its diversity" and focuses its campaigning on world wide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deforestation, overfishing, commercial whaling and anti-nuclear issues. Background - January 8, 2009(2009-01-08). "Greenpeace International FAQ: Questions about Greenpeace in general", Greenpeace. org.

한 투자자가 모아볼 수 있는 최대의 투자금은 그가 거래해가는 국가들의 전 자산들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가장 많은 투자금이 가장 많은 배당금을 취한다든가, 가장 큰 자본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은 진리이다. 따라서 국제화시대의 자본가들과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자본금과 투자자금을 최대한 불리기 위해 많은 나라의 자본가와 투자자와 다양한 경제적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자본금이나 투자금은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것은 지구상에서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나, 인간이 캐낼 수 있는 금의 양, 전 지구상에 저장되어 있는 오일의 양 등이 한정되어 있듯이 전 지구상의 인간들에게서의 자본금이나 투자금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구내의 모든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광선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한정된 자원들이다. 글로벌 시대의 인간들은 그 한정된 자원들을 다 같이 사용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의식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된다. 글로벌 시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초로 해서 출발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인간들이 자유주의정신에 입각해 인간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인정하고 각자의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들의 꿈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의 경쟁적 구조를 형성시켜 나간다. 글로벌 사회는 무한 경쟁이 몰고 온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서열화된 사회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의 경쟁적 구조나 서열화 현상은 글로벌화의 국부적이고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글로벌리즘정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종족, 인종, 민족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정신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치열한 경쟁사회가 형성되어 나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쟁사회가 만든 경제적 서열화가 새로운 신분사회를 출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글로벌리즘정신은 이 지구상에의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다.

4) 문화적 글로벌 현상

글로벌 시대로 들어와서 각 민족들이나 국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녀온 고유한 생활방식이나 혹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가치체계들이라 말할 수 있는 자신들의 문화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유해가면서 타국이나 타문화권의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문화와 공존케 해갔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로 들어와 각 국민들의 생활공간은 다양한 민족들의 전통문화나 다양한 가치체계가 공존해 가는 공간들로 전환해 나왔다. 그 결과 그러

한 생활공간들이 각국의 개별 로컬(Local) 공간들에서 형성되어 나옴에 따라 그 동안의 한 특정지역 내에서만 존재했던 문화들은 국경을 넘고 문화권을 넘어 타국으로, 타 문화권들로 퍼져나갔다. 예컨대, 김치, K-POP 등 한국의 로컬 문화의 글로벌화 현상이 바로 그러한 일례라 할 수 있다.

또 글로벌시대로 들어와서 국민들의 활동 반경 또한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되어 나왔다. 국내쇼핑, 국내여행 등이 해외쇼핑, 해외여행 등으로 전환해 나온 것도 그러한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로컬 문화의 글로벌화는 인간들의 생활공간 속에서의 전통과 현대, 자국문화와 외래문화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그러한 생활공간에서의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은 그 공간 내에서의 다양한 개성과 인격의 허용을 의미는 것이기도 했다.

문화적 글로벌화 현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1980년대 산업선진국들이 창출해낸 후기산업사회 문화의 글로벌화 현상을 의미했다. 후기 산업사회의 문화란 전기의 생산중심사회의 문화에 대해 후기의 소비중심사회의 문화를 가리킨다. 소비중심문화는 생산중심사회가 일으키는 부작용을 건전한 소비윤리 확립을 통해 극복해내려는 문화이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지불되는 생산자들의 고충들을 고려해 가면서 상품들을 소비해 간다든가, 혹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연합해 중간도매상들의 폭리를 없애 간다든가, 혹은 소비자는 소비단가를 줄이고 생산자는 생산단가를 높여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 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중심의 문화가 글로벌시대로 들어와 산업선진국사회로 퍼져나가 글로벌화되어 나갔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현상은 글로벌시대 이후 월드와이드웹(WWW) 등과 같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확립 등을 통해 한층 더 가속화되어 나갔다. 바로 이러한 소비중심문화의 글로벌화 현상은 지구상에서 인류의 평등을 지향해가는 인간들의 글로벌 정신의 발로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3.2 글로벌화의 도래 경위와 전자산업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다양한 각 분야에서 글로벌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무엇이 상기와 같은 각 분야에 글로벌화를 도래케 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우선 일차적으로 무엇이 상기와 같은 글로벌화를 주도해 왔으며, 그러한 글로벌화를 가능케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의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소련의 붕괴 원인과 인류의 우주진출

1991년 12월 8일 러시아의 옐친 등의 급진파가 벨라베자 조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소련을 해체시켰다. 이어서 동월 26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함에 따라 동월 31일 정식으로 소련 해체가 이루어지고 이를 대신해서 1992년 1월 1일 러시아연방이 성립되었다. 이에 앞서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1989년 12월 2-3일에 미국의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지중해 몰타에서의 마소 정상회담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지속되어왔던 냉전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마러간의 그러한 냉전체제의 종식선언은 핵무기 감축 등의 협정진전, 분쟁지역관리에 대한 원칙적 합의, 미국의 소련의 경제계획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약속 등을 전제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소련은 종전 이래 공산진영의 종주국 역할을 수행해왔고, 미국은 자본주의진영에서의 그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그 수행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의 경제적 협력을 받아들게 됨으로써 그들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로 전환되어 나왔던 것이다.

소련이 미국에 대해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당시 소련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으로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진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차적 이유는 소련으로서는 그 역할을 수행해 갈 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공산진영의 와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와해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고르바초프(1931-)가 1985년 54세의 나이로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되자, 그는 그해 4월 페레스트로이가 선언을 통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을 허용하면서 통제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단행해갔고, 대외적으로 공존외교를 적극 추진해갔다. 그의 그러한 정책은 소비에트 연방의 경직된 정치와 경제를 완화시켜가는 개혁정치로 이어졌고, 또 그것은 소련공산당의 동유럽공산당에 대한 통제완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1989년에 6-11월에 동유럽혁명이 일어나 그것이 냉전체제의 종결을 가져왔던 것이다.

우선 1989년 6월 당시 공산당 일당 체제하의 폴란드는 민주화 세력인 노동조합연대의 노력으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어 일당 독재의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붕괴되었다. 한편 동월에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유고슬로비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또 불가리아에서도 공산당 정부가 무너지고 그것에 대신해 불가리아 사회당이 출현해 나왔다. 8월에는 헝가리 공산당 정권이 해체되고 헝가리 인민공화국이 붕괴되어 10월에 다당제 체제로 전환해 나왔다. 11월 10일에는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이어서 동월 17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정부가, 그 다음달 25일에는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이 줄줄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마소가 그 해 12월 2~3일 몰타정상회담을 통해 냉전 체제의 종결을 선언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해 6~11월 사이에 일어난 동유럽혁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동유럽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그로부터 4년 전에 고르바초프가 일으킨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서방세계에서 1980년대 이후에 통화주의(monetarism)를 초석으로 하여 형성된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부터 출발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정책이 행해지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세계에서 일어난 개혁·개방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80년대 초에 출현한 대처리즘의 초석이 되었던 통화주의는 그 동안 노동당정부가 고수해왔던 국유화와 복지정책을 철회하고 민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민간 기업들이 행해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가능한 배제해가고, 정부가 민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시켜 주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1990년대로 들어와 국가 간의 장벽들을 허물고 전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전환 시켜나가려는 입장을 글로벌화 시켜나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개인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은 과연 어디로부터 유래된 것인가? 우선 일차적으로는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당시의 공산주의진영 내의 언론 통제를 철폐시키고, 세계를 양분화해 온 냉전체제를 종결시킨 사고라든가, 혹은 정부와 개인에 대한 대처리즘 등과 같은 입장들을 확립시킨 사고들이 결국은 글로벌리즘의 도래를 가능케 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들을 가능케 했던 것들은 물질세계 중심의 공산주의세계 속에 혹은 정신세계 중심의 자본주의세계 속에 전 지상세계가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상세계에 공산주의세계와 자본주의세계가 양존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물리적 차원에서 확인한 인간들의 세계체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러한 사고들은 인간이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우주의 한 지점에서 인간 자신들이 다 같이 지상(地上)이라는 한 공간에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한 인간들로부터 나온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인공위성을 통한 인간의 우주 진출이 바로 그러한 사고들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2) 통신위성과 글로벌 통신체계 구축

글로벌 통신체계의 기초는 1960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통신위성 에코(Echo) 1호의 발사를 계기로 해서 그 후 1964년 도쿄올림픽 때의 태평양을 횡단한 최초의 위성중계가 행해지게 됨으로써 이루어졌고, 또 그것의 확립은 인터넷의 출현을 통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글로벌

리즘의 도래를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통신위성 등을 통한 글로벌 통신체제와 그것을 이용한 각 국 시장들의 국제적 연결망의 구축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면, 대처리즘이 출현했던 1980년대 초의 시점에서 행해진 통신혁명은 세 종류였다. 하나는 아날로그 통신(analogue communication)에서 디지털 통신(計數式通信: digital communication)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 분야에서의 휴대전화의 등장이다. 나머지 하나는 인터넷통신에서의 패킷 통신(packet communication)의 채용이다.²⁰⁾ 이러한 통신혁명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출현해 나와 1990년대로 들어와 글로벌통신 체제로 발전해 나왔다. 1969년에 미국정부의 ARPA(미 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이 인터넷 설치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컴퓨터들 간의 링크가 행해지기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인터넷 통신은 상기의 통신혁명들을 거쳐 1990년대로 들어와 1990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서 월드와이드웹(WWW) 설치 등을 계기로 글로벌 통신체제로 전환해 나왔던 것이다.

3) 20세기 후반의 전자산업과 무선정보통신

20세기로 들어와 자본주의세계를 주도해온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 미국의 자본주의를 주도해온 가장 대표적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이 말은 20세기 전반 전 세계의 자본주의시장을 활성화시켜온 가장 대표적 산업은 자동차산업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어떠했는가?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와 미국의 대표적 산업은 자동차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전환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전자산업(電子産業)이란 칼라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가전제품(家電製品) 중심의 산업이다. 미국은 그러한 가전제품들의 생산을 통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자리를 유지해왔고, 패전 후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행해가면서 자본주의세계에 가담해 미국과 함께 자본주의세계를 이끌어 갔던 일본도 그러한 제품들의 생산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해 나왔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시대로 들어와서는 전자산업 중에서도 가전제품보다는 특히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다. 현재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통신산업은 그 글로벌시장의 크기가 전자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글로벌시대의 최대의 산업으로 등장한 정보통신산업의 정체는 과연

20) 泉茂行(2010) 『コンピュータと通信の未来』現代技術史研究會編 『21世紀の全技術』藤原書店, p.278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산업이 글로벌시대에 두각을 드러내게 된 것은 정보통신이 지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그것이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신매체의 특성이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성을 지닌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통신매체인 빛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한 정보 통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은 19세기 말경에서부터였고, 또 그것은 무선전화, TV,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의 형태로 변모해 나왔다.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다음과 같다.

무선전화는 전신, 전화 등과 같은 유선 통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무선통신을 의미한다. 무선통신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 출신의 미국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 1856~1943)가 1894년 라디오를 통해 최초로 발명해냈고, 1896년에는 영국에서 이탈리아인 마르코니(G. M. Marconi, 1874~1937)가 헤르츠(H. Rudolf Hert, 1857~1894)에 의해 1888년에 발견된 전자기파를 이용해 개발해냈다. 이어서 1900년 마르코니는 유럽과 아메리카대륙 간의 무선 통신에도 성공했다. 그 후 1916년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해군연구소도 무선 음성 수신에 성공했다.

텔레비전은 영국의 존 로지 베어드(John Logie Baird, 1888~1946)가 1924년 화면전달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무선통신 기구로 출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36년에 와서 영국의 BBC 방송이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고, 1953년에는 칼라TV가 미국 라디오 회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휴대전화는 1973년 미국의 모토로라 무선통신회사에 근무하던 마틴 쿠퍼 박사가 개발해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3년 미국 벨연구소에 의해 아날로그 이동전화(AMPS)로 개발해 발매되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소형 PC가 설치된 형태로 시작되어, 2007년에는 휴대폰과 인터넷이 설치된 소형 PC와의 결합 형태로 전환해 나왔다.

3.3 글로벌통신수단과 전자기파

이상과 같이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글로벌시대의 도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글로벌시대의 도래에 가장 큰 역할을 행한 것은 글로벌 통신체제의 성립이다. 글로벌 통신체제의 성립은 무선통신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라디오, TV, 무선전화 등과 같은 무선통신수단은 한마디로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수단이다. 그런데 사실상 전자기파란 1864년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J. C. Maxwell, 1832~1879)이 실험으로 그 존재를 예언하였고, 1888년 독일의 헤르츠(H. R. Hertz, 1857~194)가 실험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하였다.

전자기파는 빛(光)의 일종이다. 그것은 한곳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공간을 통해 전파해나가는 빛의 일종이다. 모든 전자기파는 그 파장 또는 진동수에 의해 그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전자기파는 그 진동수(파장)에 따라 다른 이름들로 불린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글로벌시대란 바로 그러한 전자기파가 지닌 특성에 의해 특징지워진 시대이고, 또 그것은 전자기파가 창출해 낸 시대라고 하는 입장을 취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기파와 관련시켜 글로벌시대의 특성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4. 광기(光器)시대와 글로벌시대

4.1 「광기(光器)시대」의 의미

「광기시대」(光器時代, the Photon Age)란 석기시대(石器時代, the Stone Age)·금속기시대(金屬器時代, the Metal Age)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금속기시대의 다음단계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돌로 만들어진 도구들이 사용되었던 시대를 석기시대라 부르고, 또 구리, 청동, 철 등과 같은 금속들로 만들어진 도구들이 사용되었던 시대를 금속기시대라 불렀기 때문에 각종의 광자들(빛: the photon)을 이용해 만든 기구(器具)들, 예컨대 X선을 이용해 만든 뢰트겐 사진기 등과 같은 기구들이 대거 사용되기에 이런 시대를 광기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기」나 「금속기」에서의 「석」(石)이나 「금속」(銅, 鐵 등과 같은 金屬)은 「기」(器, tool), 즉 기구(器具)를 만드는 재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들에 대응되는 「광기」(光器 the photon tool)에서의 「광」(光)은 각종 빛(광)들로 만들어진 기구(器具)들의 재료를 의미한다. 앞에서 우리는 전자기파를 빛(光)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전자기파란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자기력이 방전(放電)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전자기력이나 전자기파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기구를 광기(光器)라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전자기력과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생활하게 된 시대를 광기시대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2 광기시대와 그 도래경위

석기나 금속기는 돌이나 금속 물질들을 이루는 분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과 분자들을 구성하

는 원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 등을 이용해 만든 기구들이다. 이에 반해 광기는 분자들을 이루는 원자들 내의 전자와 핵 사이에 작용한 전자기력과 핵을 구성하는 중성자와 양성자들 간에 작용하는 핵력을 이용해 만든 기구이다.

광기시대는 인간에 의해 발견된 전기가 실생활에 사용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것이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은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이었다. 그는 1874년 자동발신기, 1877년 축음기, 1879년 전화송신기, 1880년 신식발전기, 1888년 영화 등을 발명해 실용화 시켰다. 그런데 사실은 전기를 이용한 에디슨의 이러한 발명들은 그 보다 조금 빨리 행해졌던 전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거해 행해졌었다. 일찍이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M. Faraday, 1791~1867)는 1831년에 전기력이 자기력을 유도해 내고 또 그와 반대로 자기력이 전기력을 유도해 낸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의 그러한 발견은 전기력과 자기력은 같은 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864년에는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이 역시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J. C. Maxwell, 1832~1879)에 의해 확인되었고, 1888년에 와서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H. R. Hertz, 1857~1894)에 의해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이 실험에 의해 증명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전기는 19세기 후반에 와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또 그것이 실생활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광기시대의 기초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광기시대의 기점을 헤르츠에 의해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또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 영화 등이 실용화된 1888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해 가는 1990년을 기점으로 파악되는 글로벌 시대가 이미 1세기 전에 시작된 광기시대의 한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광기시대는 인류가 1866년 독일인 E. W. 지멘스(1816~1889)의 발전기 발명 등을 계기로 해서 전기를 실용화시켜 가게 됨으로써 전기시대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또 그것은 영국의 BBC 방송국이 1936년에 와서 전자기파를 이용해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광기시대의 후기라 할 수 있는 전자기파 시대로 전개되어 나왔다.

4.3 전자기의 특성과 글로벌시대

아인슈타인의 $E=mc^2$ (m 은 중력, c 는 광속)와 막스 프랑크의 $E=hf$ (h 는 작용의 기본양자 즉 프랑크상수, f 는 초당 진동수) 이 말해주고 있듯이, 전자기파는 유선을 통해 흐르던 전자기력이 방전을 통해 전환해 나온 것으로서 진동수를 f 로 해서 초속 30만 km로 공간 속을 이동해가는 에너지 덩이이다.

이러한 빛에너지가 통신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초속 30만km로 달리는 존재이고, 또 진동수를 f 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글로벌시대의 도래는 바로 그것이 통신에 이용됨으로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기파의 속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것의 속성이란 전자기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갖은 존재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수히 서로 다른 파장들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20세기 이전까지 실생활 속에서 이용해온 전자기파는 그것들의 파장이 $10^3 \sim 10^5$ m 정도로 비교적 긴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것들은 원자들 속의 전자와 원자핵과의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자기력들로부터 출현된 것들이다. 그러나 1896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베크렐(A. H. Becquerel, 1852~1908)과 그의 부인 큐리(P. Curie, 1859~1906)에 의해 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이 발견되어 그것들도 실생활에 이용되기 시작되었다. 그런데 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빛들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자량이 많은 원소들이 그것이 낮은 원소들로 분해되는 소위 핵분열과정에서 나오는 빛들이다. 그것들의 파장은 $10^{13} \sim 10^8$ m 정도로 짧다. 다른 하나는 원자량이 작은 수소(H)와 같은 원소가 서로 융합하는 소위 핵융합과정에서 나오는 빛들이다. 그것들의 파장은 전자기파의 경우보다는 짧지만 방사선 보다는 긴 것들로서,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와 같은 원자량이 작은 원소들이 핵융합을 일으켜 가는 과정에서 방출된 태양광선의 일종들, 즉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이용해 온 빛들은 파장이 지금까지 발견된 빛의 종류 중에서 중간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19세기 후반 전기의 사용을 계기로 20세기로 들어와서 이용되기 시작된 빛들은 그 파장이 적외선 보다 더 긴 것들과 자외선보다 더 짧은 두 종류의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우주에 4종류의 서로 다른 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상기의 $E=mc^2$ 와 $E=hf$ 에 입각해 볼 때, 질량은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이고 모든 힘들은 파장을 달리하는 빛들의 환원 형태라는 입장이 취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파장의 길이에 의거해 힘들의 종류들도 논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 취해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류가 어떠한 종류의 빛들을 이용해왔고, 또 어떤 종류의 힘들을 이용해 왔는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특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4.4 전자기력과 핵력

그 4종류의 힘들이란 중력·전자기력·강핵력·약핵력을 가리킨다. 중력은 질량을 갖은 존재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고, 전자기력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핵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강핵력은 핵을 구성한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약핵력은 핵 속의 중성자를 구성하는 소립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중성자 붕괴[핵 속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되면서 전자(α 선=양전자, β 선=전자, γ 선=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기파)와 뉴트리노(중성미자)를 방출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다.

인류가 전기력을 개발해 사용하기 이전에는 주로 중력을 이용해 일을 행해왔다. 예컨대 망치, 물레방아, 지렛대 등과 같은 도구들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으로 들어와 전기력이 실생활의 각 방면에서 사용되기 시작됨에 따라 전기(電氣)시대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19세기 후반 전기력은 유선을 통해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런데 20세기로 들어와서는 전자기력이 지닌 한 특성인 전자기파의 진동성과 그 속도가 무선의 형태로 통신에 이용되기 시작 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시대의 도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초에 M. 맥루한 등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글로벌 빌리지”(the global village) 등을 통해 출현한 “글로벌”(the global)이란 말도 사실은 전자기력과 전자기파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이용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현대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한편 20세기로 들어와, 원자 속의 전자와 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원자 속의 원자핵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원자 속에 전자와 핵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해 최초로 원자모형을 제안한 자는 1911년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퍼드(E. Rutherford, 1871~1937)였다. 1932년에 가서는 채드윅(J. Chadwick, 1891~1974)에 의해 원자핵 속에서 중성자가 발견되었다.

핵 속에서 중성자가 발견되기 이전에 프랑스 물리학자 베크렐(A. H. Becquerel, 1851~1908)은 우라늄 화합물로부터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03년에는 피에르 퀴리(P. Curie, 1859~1906)에 의해 그 방사선이 원자핵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그는 그의 부인 마리 퀴리(Marie Curie, 1867~1934)와 함께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즉 퀴리부부의 발견은 약핵력의 발견이었다. 1934년 퀴리 부부의 장녀 이렌 줄리오 퀴리(Irène Joliot-Curie, 1897~1956)와 사위 J. F. 줄리오퀴리(Jean Frédéric Joliot-Curie, 1900~1958) 부부는 폴로늄에서 나오는 α 선을 알루미늄에 충돌시켜 인공방사능(방사선 원소가 스스로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발견하였다. 바로 그 인공방사능의 발견을 계기로 약핵력은 의학, 공학, 농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1935년 유가와 히데키(湯川秀樹, 1907~1981)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 중간자를 발견하였고, 또 1938년에 독일의 화학자 한(O. Hahn, 1879~1968)과 슈트라스만(F. Strassmann, 1902~

1968)은 속력이 제어된 중성자가 우라늄에 충돌될 때 그것이 우라늄 핵에 포획되어 핵이 분열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1942년에는 이탈리아 출신 미국의 물리학자 페르미(E. Fermi, 1901~1954)가 강핵력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해서 핵의 연쇄반응을 제어하는 실험을 성공시켜 최초로 원자로를 만들어내게 됨에 따라 원자력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동년 1942년 미국 뉴멕시코주(州) 로스앨러모스의 원자폭탄 연구소에서는 원자폭탄이 개발되었다. 그 결과 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에 우라늄 235 폭탄이 9일에는 나가사키(長崎)에 플루토늄 239 폭탄이 각각 투하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49년에는 소련이, 52년에는 영국이, 60년에는 프랑스가 각각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되었고, 뒤이어 중국·인도·남 공 등도 그것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자력과 원자폭탄은 핵분열의 과정에서 나오는 강핵력을 이용해 만든 기구이다.

이처럼 우리는 핵을 분열시켜 강핵력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핵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그것은 핵융합을 통한 핵에너지의 이용이었다.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의 원자핵들은 서로 융합해 헬륨과 같은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으로 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태양이나 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도 핵융합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태양의 중심부는 수소와 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고온상태 속에서 핵융합을 일으켜 핵분열 때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현재 인류는 국가별로 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핵융합을 통해 핵에너지를 얻으려는 연구에 매진해가고 있다. 연구자들은 핵융합과정에서 방출되는 핵에너지를 2035년경에는 상용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핵융합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²¹⁾

또 우리는 핵들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온 핵에너지의 일종인 태양광선을 연구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다는 입장을 취해가고 있다. 태양광선은 우리 인류가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핵에너지임에 틀림없다. 잘만하면 우리는 반드시 태양을 원자력발전소의 대용으로 사용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원전 대용으로 이용해가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그 이용방법에 대한 괄목할 만한 연구가 요구된다.

사실상 전자기력은 유선을 통해 달리는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또 그것은 파장을 가지고 직진해가는 광자들로 이루어진 에너지 덩이이기도 하다. 약력이나 강력과 같은 핵력도 결국은 파장을 취해 직진해가는 진동수가 높은 광자들의 일종들로 파악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자기력도 핵력도 광파(光波)의 일종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그것들의 속도는 같지만 전자기력의 광파는 핵력의 그것보다 파장이 더 길고, 핵력의 그것은 전자기력

21) 가리 맥크라켄(Garry McCracken)/페이터 스톱트(Peter Stott)-윤창모 외 역(2007) 『핵융합 :우주의 에너지』 (주)북힐, p.11

의 그것보다 더 짧다고 하는 것이다.

20세기로 들어와 10^3m 이상의 긴 파장의 광자들이 통신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되었고, 또 $10^3\sim 10^{13}\text{m}$ 의 짧은 파장의 그것들은 주로 의료·사진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기 시작됨에 따라 이전과는 사뭇 다른 글로벌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앞으로는 핵에너지의 일종인 태양광선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또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그것들보다 더 길거나 혹은 더 짧은 파장의 광자들이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이전과는 또 다른 단계의 광기 시대가 도래 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글로벌시대란 광기시대의 중반기로 파악될 수 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E=mc^2$ 에 입각해 생각해볼 때 질량을 갖는 모든 존재는 빛에너지로 분해될 수 있고, 중력이 다른 빛들의 경우처럼 중력파의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해볼 수 있다. 또 우리는 중력파도 빛의 일종이라는 입장을 취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Brian Green)은 중력파는 빛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²²⁾ 그에게서의 빛이란 전자기파로 한정된다. 그러나 과학학에서의 빛이란 전자기파와 같은 파의 형태를 취해 공간을 이동하는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학학에서는 중력파도 빛의 일종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금후 중력파를 이용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갈 수 있는 또 다른 단계의 광기시대의 도래가 예상된다. 브라이언 그린의 말에 의하면, “중력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지역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5.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는 문명사적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글로벌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도래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해 봤다. 그 결과 우리는 글로벌시대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는 시대라는 입장을 취해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도구들의 발달과정을 척도로 해서 석기시대에서 금속기시대로 전개되어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 금속기시대는 순금속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로 3분되어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에 처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22) 브라이언 그린·박병철 역(2004) 『우주의 구조』웅산, p.571

23) 상동서, pp.570-571

인류역사는 석기시대에서 금속기시대로 전개되어 나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보는 한 현재 우리는 금속기시대의 3번째 단계인 철기시대에 처해 있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입장이 과연 어느 정도 객관성에 기초한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이러한 입장이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도구들이 철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예컨대, 전화, TV, 냉장고, 컴퓨터 등과 같은 제품들을 철기제품이라 말하지 않고, 전기나 전자제품이라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제품들의 특성이 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견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나 전자가 지닌 유동성에 있기 때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가전자 제품들이 지닌 특성은 전력이나 전자기파의 유동성을 이용해 어떤 일들을 행해가는 도구라고 하는 특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전가전자제품들을 주된 생활도구로 사용해가는 시대를 철기시대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는 철기시대와는 구분되는 어떤 새로운 시대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를 기존의 석기시대, 금속기시대 등과 대응시켜봤을 때 어떤 시대로 이름 붙여 볼 수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인류는 19세기 후반 이후 전기를 사용해 많은 일들을 처리해 왔고, 20세기로 들어와서는 전기의 또 다른 형태인 전자기파를 이용해 자신들이 행하고자 했던 것들을 실행해 나갔다. 또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자기파의 또 다른 형태인 핵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현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 전자기파, 핵력 등이 모두 다 빛(光)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전의 철이 지닌 견고성이라고 하는 특성과는 달리 전기, 전자기파, 핵력 등이 지닌 유동성을 그 본질로 하는 빛을 이용해 생활 도구들을 만들어 쓰던 시대를 광기시대(光器時代)로 명명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글로벌시대란 광기시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글로벌시대는 인터넷을 통해 전 지구적 규모의 통신망이 구축되어 전지구가 하나의 인류사회로 전환해 나온 시대로 특징 지워 질 수 있는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전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사회로 전환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의 출현에 의해서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출현은 인류가 전자기파를 통신수단으로 활용해 가게 됨으로써 일어난 현상이다. 글로벌 현상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글로벌현상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양진영 간의 정치작경제적 장벽이 허물어짐으로써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

해 왔다. 그들의 그러한 견해들에 대해 필자가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은 그러한 장벽들을 허물어낸 자들은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이라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글로벌적 사고를 주입시켜준 것들은 일차적으로 과학자들의 인공위성을 통한 인류의 우주체험이라 할 수 있고, 더 근본적 차원에서 말할 것 같으면 과학자들로 하여금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진출 등과 같은 모험들을 가능케 했던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모험을 가능케 했던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930년대부터 활용하기 시작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의 경우와 같은 무선통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이란 국가 간의 장벽이나 이념들 간의 장벽을 넘어 그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도구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글로벌시대란 빛의 일종인 전자기파가 일상생활의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도래된 시대라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글로벌시대는 빛의 속도와 파장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전파를 통한 글로벌 규모의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나옴으로써 도래된 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시대의 이념적 기초는 전자기파의 특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전자기파는 우주적 시각에서 전 지구를 하나의 통일된 단일공간으로 파악해 낼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전자기파가 일상생활의 도구로 사용되는 글로벌 시대에 인간들이 추구해가는 보편적 가치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일차적으로 전 지구상에 존재하여 모든 지역들 간의 통일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 통일된 단일공간에서의 인종적종족적·민족적국가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평등이라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전기, 전자기, 핵력 등이 모두 다 빛(光)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고, 또 인류가 19세기 후반에 와서 전기를, 20세기 초반에는 전자기파를, 그 중반에는 핵력을 각각 생활도구들로 활용해 왔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글로벌시대란 광기시대의 중반기에 해당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광기시대의 후반기, 즉 앞으로의 글로벌시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빛이 여러 방면에 이용됨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앞으로 우리는 핵들의 융합 과정에서 나온 태양 광선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그것을 원전의 핵에너지 대용으로 활용해 가는 등 그것을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적극 이용해 감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광기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글로벌시대는 광기시대의 중반기로 파악될 수 있는 시대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 김동춘 외 편저(2000) 『NGO란 무엇인가』아르케, p.9
 가리 맥크락켄, 페이터 스코트·윤창모 외 역(2007) 『해융합 :우주의 에너지』(주)북힐, p.11
 브라이언 그란·박병철 역(2004) 『우주의 구조』승산, p.571
 에드가 모랭·이재형 역(1993) 『지구는 우리의 조국』문예출판사, pp.20-21
 전창환 외(1996)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자유주의」『자유주의 비판』폴빛, p.323
 石原孝一 松本博一 編者(1990) 『グローバリズムの國際政治經濟學』文眞堂, p.3
 泉茂行(2010) 「コンピュータと通信の未来」『21世紀の全技術』藤原書店
 自由國民社 編(2001) 『現代用語の基礎知識』東京:自由國民社, p.523
 藝野祐三(1999) 『先進社会の國際環境』京都:法律文化社, p.174
 J A Simpson, E S C Weiner, Oxford University Press(1989),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I.-1.-a., "earth" I.-1., "globe"
 Charles W. Kegleg Jr., The Global Agenda: Issues and Perspectives, USA:Random House, 1984, p.v
 Edmund Carpenter and Marshall McLuhan(1960), Explorations in Communication, USA:the Beacon Press
 Marshall McLuhan(1962), Gutenberg Galaxy: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31
 M. E. Porter(1986),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 A Conceptual Framework",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Martin Albrow(1997), The Global Age, California:Stanford University Press, p.26

논문투고일 : 2012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20일

〈要旨〉

글로벌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 문명사적 측면을 통해 -

도구들의 발달과정을 고찰해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석기시대에서 금속기시대로 전개되어 나왔다. 우리는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철기제품이라 말하지 않고, 전기나 전자제품이라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제품들이 철의 특성인 견고성을 이용해 만든 것이 아니라, 전기나 전자가 지닌 유동성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를 철기시대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를 기존의 석기시대, 금속기시대 등과 대응시켜봤을 때 어떤 시대로 이를 붙여 볼 수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 전자기파, 핵력 등이 모두 다 빛(光)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전의 금속의 특성인 견고성을 이용해 생활도구를 제작해 사용해 오던 금속기시대에 대응시켜 전기, 전자기파, 핵력 등을 구성하는 광자들의 유동성을 이용해 생활 도구들을 만들어 쓰는 시대를 광기시대 (光器時代)로 명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광기시대의 후반기, 즉 앞으로의 글로벌시대는 빛이 여러 방면에 이용됨으로써 분명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적극 이용해감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광기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What is the Global Age? -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 -

When we consider i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ools, we can understand that the history of the human began with the stone tool and developed to the metal tool. As far as we understand that the Metal Ag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of pure metal tools, bronze tools, and iron tools, we can not but take the attitude that we are now faced with the third step of the Metal Age called the Iron Age.

How can we name our age when we are using the electric on electronic products? What I emphasize here is that all of electricity, the wave of electromagnetism, and the nuclear power are each kind of light. In that sense we can name the days when electricity, the wave of electromagnetism, and the nuclear power are used the Age of light tools or the Light Age.

How is the Global Age connected with the Light Age? The Global Age is the days when is characteristic of all the space of the earth to be one society of the human as the following that the communication system of the global scale was constructed by the internet. The appearance of the internet can be said that one phenomenon which happened as the result of man to utilize the wave of electromagnetism as the means of communication. Therefore, The ideological basement of the Global Age is on the characteristic of electromagnetism wave. The general vale man has pursued for in the Global Age is said first of all the regional unification in the earth, and the next the equality of human races, tribes, peoples, and nations in the earth, and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equality in the world.